

국 어

해설위원 :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서울시 9급 국어 출제 영역]

| 출제 영역  | 문항 수<br>(2015) | 출제 포인트(난도)                                                                                                                                           |
|--------|----------------|------------------------------------------------------------------------------------------------------------------------------------------------------|
| 국문법    | 9(6)           | [국어의 특질-한글의 제자 원리](하)<br>[음운론-음운의 변동](하)<br>[형태론-단어의 형성](중)<br>[품사론-품사](중)<br>[품사-동사](중)<br>[어휘론-고유어](상)<br>[어휘론](중)<br>[의미론-단어의 의미](하)<br>[문장성분](중) |
| 어문규정   | 4(4)           | [표준어](하)<br>[표준발음법](하)<br>[띄어쓰기](하)<br>[외래어 표기](하)                                                                                                   |
| 속담과 한자 | 3(4)           | [한자](하)<br>[한자성어](중)<br>[한자성어-한자](중)                                                                                                                 |
| 비문학    | 1(3)           | [독해-내용 파악](중)                                                                                                                                        |
| 문학     | 3(3)           | [현대소설-추론](하)<br>[현대문학사](중)<br>[현대문학사](중)                                                                                                             |

[총 평]

이전보다 많아진 국문법, 줄어든 비문학

서울시의 기존 유형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국문법 문제의 강세와 비문학 문제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문학사를 다루는 특성이 있는 서울시 문제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서울시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대체로 고득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국문법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국문법에서 주로 다루어왔던 한글의 제자 원리, 단어의 형성, 품사, 문장성분 등과 함께 고유어의 의미를 두 문제나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의 난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어문규정은 표준어, 표준발음, 띄어쓰기, 외래어 등 4문제를 출제했는데 특이한 문제는 없었다.

한자에서는 ‘集中力(집중력)’, 한자성어에서는 ‘기호지세(騎虎之勢)’를 문제화하고, 한자성어의 맞는 한자 표기를 문제화했다. 한자성어를 의미만 떠올리고 한자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히 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 비문학 문제는 1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최근 출제 경향과는 다른 양상이다.

**문학에서는 서울시답게 문학사 문제를 두 문제 출제했다.** 고전문학은 출제되지 않고, 현대문학에서만 3문제나 출제했다. 문학사의 큰 흐름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흐름 속에서 다루어지는 중요 작품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답을 제대로 했을 수 있다.

0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꼬나풀 - 새벽녘 - 샅쟁이 - 떨어먹다
- ② 뜯게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닭다
-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강아지
- ④ 보조개 - 솟양 - 광우리 - 강남콩

01. [정답] ③

[표준어]

- \* ‘치켜세우다, 추어올리다, 추어주다’ 등은 칭찬하다의 의미를 갖는 표준어들이다.
- \* ‘사글세, 월세’는 표준어이다. ‘삭월세’는 비표준어이다.
- \* ‘설거지’가 표준어이다. ‘설겅이’는 비표준어이다.
- \* 거센소리를 취하는 경우로 ‘수강아지’가 있다. 이외에도 ‘수개, 수탉, 수평아리, 수키와, 수틀썰귀, 수탕나귀, 수태지, 수컷’ 등이 있다. 물론 ‘암개’와 같이 ‘암-’이라는 접두사가 붙을 때도 똑같다.

<오답 피하기>

- ① \* ‘꼬나풀’이 표준어이고, ‘꼬나불’은 비표준어이다.
- \* ‘새벽녘’은 받침에 ‘ㄱ’이 들어가야 한다. ‘들녘, 동틀 녘’ 등도 ‘녘’이라 써야 한다. ‘저녁’과 같은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 \* ‘샅쟁이, 샅’이 표준어이다. ‘샅쟁이’는 비표준어이다.
- \* ‘떨어먹다’가 표준어이다. ‘떨어먹다’는 비표준어이다.

떨어먹다: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 유의어 : 탕진하다, 들어먹다

- ② \* 뜯게질: 해지고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빨래할 옷의 솔기를 뜯어내는 일.
- \* ‘셋째’가 표준어이다. ‘세째’는 비표준어이다.
- \* ‘수평아리’가 표준어이다.
- \* ‘애닭프다’가 표준어이고, ‘애닭다’는 비표준어이다.
- ④ \* ‘보조개/불우물’은 복수표준어이다.
- \* ‘솟양’과 더불어 ‘솟염소, 솟귀’도 ‘솟-’을 접두사로 한 표준어이다.
- \* ‘광우리’가 표준어이고, ‘광우리’는 비표준어이다.
- \* ‘강남콩’이 표준어이고, ‘강남콩’은 비표준어이다.

02. 다음 중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빠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건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 값을 물어주었다. 포도 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 ① ㉠: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② ㉡: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 포도는 장사 밀천을 대준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02. [정답] ①

[현대소설-추론]

문맥을 통해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밑줄 그은 부분의 의미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된다. 앞의 문장에 나는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라고 했다. 이러한 나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던 것이다.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잘못된 추론이다. 결론적으로 참외 장사가 안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② 황수건이 참외 장사가 안 되고,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자신을 도와준 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포도를 가져온 것이다. 물론 그것이 훗친 것 이긴 해도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황수건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④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황수건에 대한 호의로 그와 같 은 행동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태준의 <달밤>

\* 화자인 ‘나’와 주인공인 ‘황수건’이라는 사내가 엮어나가는 이야기이다. 우둔하고 천진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은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온갖 아픔을 겪어나가는 일을 중심 서사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슬픈 정조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 작품은 주인공 ‘황수건’의 사람됨과 그런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현실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약삭빠르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 그 속에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물도 인격체로서 살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0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쥬라’가 되었다.
-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 ④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03. [정답] ④

[음운의 변동]

‘가+아서’가 ‘가서’로 변화하는 것은 어간 ‘가-’의 모음 ‘ㅏ’가 탈락되어 나타난 것이다. 음 운 탈락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머지는 모두 음운 축약이 나타나 정답이 ④이다.

<오답 피하기>

① ‘옳다’는 [올타]: ‘ㅎ+ㄷ→ㅌ’ 자음 축약.  
‘옳지’는 [올치]: ‘ㅎ+ㅈ→ㅊ’ 자음 축약.

② ‘주+어라’가 만나 ‘쥬라’: ‘ㅈ+ㄹ→ㄹ’ 모음 축약.

③ ‘막혀’는 [마켜]: ‘ㄱ+ㅎ→ㄱ’ 자음 축약.  
‘맞힌’은 [마친]: ‘ㅈ+ㅎ→ㅊ’ 자음 축약.

0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들 눈에 떨 뿐 한적했다.
-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04. [정답] ②

[품사]

수사를 포함하는 체언에는 조사가 붙거나 붙을 수 있고,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 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틀릴 수 없는 문제이다.

\* ‘한들’은 ‘한들이 눈에 떠다’라는 문장에서 주격 조사 ‘이’가 빠진 수사에 해당한다. 나머 지는 모두 관형사에 해당한다.

\* 한들: [수사] 하나나 둘쯤 되는 수.

<오답 피하기>

① ‘권’을 꾸미는 수관형사 ‘한’이다.

③ ‘사람’을 꾸미는 수관형사 ‘두’이다.

④ ‘개’를 꾸미는 수관형사 ‘두세’이다.

05.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 ③ 가리사나: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05. [정답] ②

[고유어]

고유어의 의미는 단어의 뉘앙스를 고려하고, 쓰임새를 고려하여 추리해야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 ‘비나리치다’의 ‘비나리’는 ‘비는 행위, 어떤 일을 소망하여 ‘비는 행위’와 관련됨을 고려 해야 한다. 그런데 뜻풀이를 보면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라고 했으니 표현과 연결 고리를 찾기가 힘들다.

\* 비나리치다: 아침을 해가며 환심을 사다.

\* 비나리: 1. <민속>걸립을 업으로 삼는 사람.  
2. <민속>걸립패가 마지막으로 행하는 마당굿에서 곡식과 돈을 상 위에 받아 놓고 외는 고사 문서. 또는 그것을 외는 사람.  
3.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침합.  
\* 걸립(乞粒): 동네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패를 짜서 각처로 다 니면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

<오답 피하기>

① ‘노느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금방 그 뜻이 맞음을 짐작.

③ ‘가리다’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④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보면 관련이 있음을 짐작.

06.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 ② 알콜(alc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써클(circle)
-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06. [정답] ④

[외래어 표기]

\* 배지(badge)(○) 뺏지(×)

\* 앙코르(encore): [r]이 어중이나 어말에 쓰이면 ‘르’로 써야 한다. ‘앙콜’(×)

\* 콘테스트(contest): 실제 발음을 보면 [kəntest]이다. 그런데 관용으로 굳어진 것으로 봄이 온당하겠다.

\* 난센스(nonsense): 년센스(X), 난젠스(X), 년젠스(X).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평범하 지 아니한 말 또는 일. ‘당참은 말’, ‘당참은 일’로 순화.

<오답 피하기>

① 옐로(yellow): [ou]는 ‘오’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름.

② 알코올(alcohol): ‘o’가 두 번 발음되어 ‘알코올’로 적는다.  
서클(circle): 영어에서 된소리 표기는 잘못된 것.

③ 도넛(doughnut): 도나스(X), 도너스(X), 도너츠(X), 도우넛(X)

07. 다음은 신문 보도와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해명이다. 이에 대한 해석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신 문 보 도 | (1)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br>(2)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 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PM)여권을 소지 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 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
| 해 명 자 료 | (1)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u>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u> 으 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br>(2)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 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

- ①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개략적으로, (2)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③ 해명 자료(1)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 스러워진 표현이다.
- ④ 해명 자료(2)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 하고 있다.

07. [정답] ④

[독해-내용 파악]

해명 자료(2)는 유학생, 주재원 등이 통상 해외이주 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한다고 했다. 그래서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가 없다고 했다. 단독세대 원이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 ‘I-PIN’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도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인 터넷 신원확인 번호이다.





㉔ 1940년대 문학사를 다루고 있다.

\* 『인문평론』: 1939년 10월에 창간, 1941년 4월에 폐간. 편집, 발행인은 최재서(崔載瑞). 창간 후 권두언에서 문학자들도 건설사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일본의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합리화하는 데 앞장섬.

\* 『문장』: 1939년 2월에 창간되어 1941년 4월 통권 25호(1939년 7월 임시 중간호 포함 26호)로 폐간. 편집 겸 발행인 김연만(金鍊萬), 주간 이태준(李泰俊), 제자(題字)는 김정희(金正喜) 필적의 집자(集字), 권두화(卷頭畫)·표지화(表紙畫)는 김용준(金溶俊)·길진섭(吉鎭燾)이 맡았다. 1939년 2월에 창간하여 7월에 임시 중간호를 발행하였고, 1940년 6월과 8월에 용지난으로 휴간하고, 1941년에는 일제 당국의 『문장』·『인문평론』·『신세기』의 병합과 함께 '일선어(日鮮語)를 반분하여 황도정신(皇道精神) 양양에 적극 협력하라.'는 데 불응하고 폐간했다.

17. <보기>는 '비치다'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① 【...에】 ①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②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인다.  
③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인다.  
④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  
⑤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인다.
- ②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 ③ 【...에/에게 ...을】 ①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②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시 깨우쳐 주다.

- ① ①❶: 창문을 좋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② ①❸: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③ ②: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④ ③❶: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17. [정답] ②

[단어의 의미]

산의 그림자가 호수에 비친 것을 뜻하므로 ‘**13**’의 예시로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①⑤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인다.  
 ③ ①④ 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  
 ④ ‘으로’라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②의 뜻으로 쓰였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ㄱ, ㄴ, ㄷ, ㄹ,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ㆅ, ㆆ, ㆉ, ㆊ, ㆋ, ㆌ’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봉’이 있다.

18. [정답] ④

[한글의 제자 원리]

‘연서’는 ‘이어쓰기’로 순음 아래 ‘ㅇ’을 이어 쓰는 ‘병, 몽, 풍’ 등을 말한다.

**<오답 피하기>**

- ① ‘ㄴ’이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을 때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ㄱ, ㄴ, ㄷ, ㄱ,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ㅌ, ㄴ, ㅍ, ㅈ, ㅊ, ㅇ, ㅎ’ 총 9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ㄹ’은 ‘ㅇ, ㅌ’과 함께 이체자로 처리된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7자, 중성 11자’로 만들었고, 중성은 중성부용초성에 따라 쓰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대화를 ∨ 하면 ∨ 할수록 ∨ 타협점은 ∨ 커녕 ∨ 점점 ∨ 같등만 ∨ 커지게 ∨ 되었다.
- ② 창문 ∨ 밖에 ∨ 소리가 ∨ 나서 ∨ 봤더니 ∨ 바람 ∨ 소리 ∨ 밖에 ∨ 들리지 ∨ 않았다.
- ③ 그 ∨ 만큼 ∨ 샀으면 ∨ 충분하니 ∨ 가져갈 ∨ 수 ∨ 있을만큼만 ∨ 상자에 ∨ 담으렴.
- ④ 나는 ∨ 내대로 ∨ 갈 ∨ 데가 ∨ 있으니 ∨ 너는 ∨ 네가 ∨ 가고 ∨ 싶은 ∨ 데로 ∨ 가거라.

19. [정답] ④

[띄어쓰기]

\* ‘나대로’: ‘대로’는 체언과 결합하면 조사로 처리되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갈V데가’: ‘갈’은 관형어로 의존명사 ‘데’와 띄어 써야 옳다.

\* ‘싫은V테로’: ‘싫은’이 관형어로 의존명사 ‘테’와 띄어 써야 옳다.

**<오답 피하기>**

- ① 타협점은커녕: ‘커녕’은 보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 ② 바람▽소리밖에: ‘바람▽소리’는 합성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밖에’는 뒤에 부정적 서술어 형태가 올 때 앞말과 붙여 쓰는 ‘보조사’이다.
  - ③ 그만큼: ‘만큼’은 비교 부사격 조사로 체언인 앞말에 붙여 쓴다.
- \* 있을▽만큼만: ‘있을’이 관형어이고 ‘만큼’이라는 의존명사와 띄어 써야 옳다. ‘만’은 보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溫古知新                      ② 麥秀之嘆  
③ 識者憂患                      ④ 左考右昉

20. [정답] ②

[한자성어-한자]

\* 麥(보리 맥) 秀(빠어들 수) 之(이조사 지) 嘆(탄식할 탄): 보리만 무성(茂盛)하게 자란 것을 탄식(歎息)함이라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滅亡)을 탄식(歎息)함. 유사 한자성어: 亡國之歎(망국지탄), 亡國之恨(망국지한), 麥秀黍離(맥수서유), 麥秀之歎(맥수지탄), 黍離之嘆(서리지탄)

### <오답 피하기>

- ① 溫(따뜻함 온) 故(옛 고) 知(알 지) 新(새 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다시 말하면, 옛 학문(學問)을 되풀이하여 연구(研究)하고, 현실(現實)을 처리(處理)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學問)을 이해(理解)하여야 비로소 남의 스승이 될 자격(資格)이 있다는 뜻임.
- ③ 識(알 식) 字(글자 자) 憂(근심할 우) 患(근심 환):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①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知識)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됨 ②도리(道理)를 알고 있는 까닭으로 도리어 불리(不利)하게 되었음을 이룸. ③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때를 이룸.
- ④ 左(왼 좌) 顧(돌아볼 고) 右(오른쪽 우) 眄(애꾸눈 먼):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짝 눈으로 자세(仔細)히 살핀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얼른 결정(決定)을 짓지 못함을 비유(比喻·譬喻)함.